

장성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9명 진폐증 확인

장성 시멘트 공장과 석회광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9명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공장 등에서 일하지 않은 직업력이 없는 주민으로 분진이 날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멘트공장과 석회광산 등 주변 환경이 진폐증 발생 등 주민 건강에 일정부분 악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와 장성군이 해당 업체의 관련법 준수 여부 검사와 함께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장성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의 주민 건강을 조사한 결과, 총 9명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진폐증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폐와 기관지 기능이 저하된 환기 기능장애 유소견자는 16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장성 시멘트 공장과 석회광산이 주민들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장성읍과 황룡면의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광산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115명(조사군)과 비교 지역인 서산면 및 성산리 지역 주민 382명(대조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1497명 중 9명이 진폐증으로 진단됐고 이 중 3명(0.2%)은 본인 관련 직업력이 없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은 조사 지역인 장성읍과 황룡면에 30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들이었다.

환경부 지난해 4월~12월 조사
관련 직업력 없는 주민 3명 발병
환기기능장애 유소견자는 166명

환기 기능장애 유소견자는 폐기능 유효조사자 969명 중 166명으로 확인됐다. 조사지역의 환기 기능장애 유병률은 18.8%(127명)로 대조지역 13.2%(39명)보다 다소 높았으나 환경오염에 의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환기 기능장애 중 제한성 폐질환의 유병률은 조사지역이 9.3%(63명)로 대조지역의 3.4%(10명)보다 높았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 등을 함께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고령 또는 심장질환과 같은 타질환에 동반됐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조사지역이 9.5%(64명), 대조지역이 9.8%(29명)이었으며 성, 연령, 흡연 등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기환경 부문에서는 조사지역이 대조지역보다 오염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기환경 기준 및 다른 공장 지역보다는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걸렸다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과



조사지역 지도

거에는 지금보다 환경 기준 등이 느슨한 부분이 있어 분진 배출량이 많았을 확률이 높다”면서 “진폐증의 경우 현재 노출보다는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분진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이나 석회 광산이 일정부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진폐증 환자와 환기 기능장애 유소견자에 대해 장성군과 함께 건강검진, 진료지원 등 사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증심사~약사사 길 확장 논란

무등산사무소 “목재 테크 깔아 통행로 확보”

환경단체 “생태경관·문화재 보호구역 악영향”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증심사 입구 탐방코스인 증심사~약사사 구간에서 추진 중인 탐방로 정비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증심교와 약사암 구간은 노약자나 사할신도 등 탐방객 이용이 많은 저지대 탐방코스인 보도와 차도 사이가 구분되지 않은 탓에 차량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1.2km에 달하며 폭이 2.1m로 좁은데다 차량과 등산객이 함께 이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곳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겨울 차량이 등산객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친화적인 목재 테크를 깔아 탐방객의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탐방로 확장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등산객 등 인간의 편의를 위해 공사에 나서게 되면 자연히 무등산 생태경관과 문화재보호구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이와 관련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객의 안전과 산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 탐방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에도 검토를 의뢰했으며 각계 각종 여론을 수렴한 뒤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반달곰이 물어 뜯은 등산객의 침낭.



지리산에 방사돼 나무에 올라 놓고 있는 반달곰가족. (환경부 제공)



지리산 반달곰 출몰 주의보

음식물 냄새 맡고 대피소까지 찾아와 침낭 물어뜯고 달아나
자연적응 실패 먹이 찾아 출몰... 냄새 강한 음식물 휴대 주의

지리산에 방사돼 야생 적응을 하고 있던 반달 가슴곰 한마리가 등산객이 자고 있던 침낭을 음식물로 오인하고 물어 뜯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리산 자락에는 현재 반달곰 34마리가 야생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달곰 등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정해진 탐방로로 다니고, 한적한 산길을 지날 땐 인기척을 내면서 이동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배낭에 냄새가 강한 음식물을 넣고 다니는 것도 야생동물을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 한마리가 지난 8일 밤 10시30분께 지리산 벽성령대피소에서 비박 중이던 탐방객 이모(58·강원도 철원)씨 등 2명이 덮고 있던 침낭을 물어뜯었다. 최근 새끼를 낳은 100kg 남짓의 암컷

반달곰이 대피소 앞 탁자 위에 놓인 음식물 냄새를 맡고 접근, 침낭을 음식물로 오인해 빛어진 것이다. 반달곰은 훌륭한 대피소 직원들이 최후가스와 공포탄을 쏘아대자 쫓겨났지만 자칫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이번에 발생한 피운 반달곰이 야생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포획한 뒤 번식용으로 기를 계획이다. 방사한 다음 탐방객이 쉬어가는 대피소 주변에서 먹이를 구하려는 습성이 자주 목격됐기 때문이다.

두 마리 새끼곰도 함께 데려와 자연 적응 훈련장에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피하고 자연에 적응하는 연습을 시킬 예정이다. 그 뒤 새끼 반달곰 2마리를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낼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피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침낭을 물어뜯은 반달곰은 중국에서 들여와 지난 2011년 방사한 곰(CF-38-5살)으로, 지난 3월 암컷 두 마리를 낳았다.

새끼들에게 젖을 주고 보살피느라 늘 굶주렸던 어미 반달곰에게 먹이라고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와 산딸기 등 작은 과일이 전부였던 까닭에 6~7월은 반달곰에게는 잔인한 계절이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이끌고 있는 종복원기술원 이배근 부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어미곰이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며 영양보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겹살과 햄 등 간편한 음식물을 휴대하고 산에 오르는 것은 반달곰 등 야생동물을 끌어들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p>낙지한마당</p> <p>동구 대의동 69-3 (동부경찰서앞)</p> <p>연포탕, 낙지볶음 낙지비빔밥, 산낙지</p> <p>☎062)225-1171</p>	<p>커피홀릭</p> <p>충장로3가 11번지 (이씨유정문건너편2층)</p> <p>직접볶은 신선커피</p> <p>대표 김현오 ☎062)229-0230</p>	<p>고전방</p> <p>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후문)</p> <p>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남원추어탕</p> <p>동구 대의동 71-4</p> <p>남원추어탕의명가 음식문화의고품격, 단체손님환영</p> <p>대표 성호준 ☎010-3141-0744</p>		
<p>올리브반찬도시락</p> <p>그날그날조리한맛깔스런반찬과 직접담은국내산김치로정성스럽게준비 병원,사무실,공장,학원,기타모든업종</p> <p>☎062)225-2810, 010-9856-0662</p>	<p>내일또식당</p> <p>동구 금남로2가 10번지</p> <p>생선회, 생선매운탕 점식특별메뉴</p> <p>대표 강점수 ☎062)266-1888</p>	<p>이가회관</p> <p>동구 금남로2가 2-3번지</p> <p>생태탕, 점심백반전문, 각종모임 단체손님예약환영</p> <p>대표 이복례 ☎062)224-1541</p>	<p>수양공인중개사</p> <p>동구 금남로3가 심호빌딩3층 건물, 토지및모든부동산 매매전문</p> <p>대표 정태철 ☎062)232-3315</p>	<p>목석원</p> <p>동구대의동67</p> <p>한우낙지전문, 불낙 꽃등심, 애호박찌개</p> <p>대표 김준옥 ☎062)232-5224</p>	<p>해뜨는집</p> <p>동구대의동 11-4 (전일빌딩뒤)</p> <p>고등어조림 생고기비빔밥</p> <p>대표 이승범 ☎062)223-1818</p>
<p>여로</p> <p>동구 궁동 35-10번지</p> <p>쌈밥전문 단체예약주문환영</p> <p>대표 홍형남 ☎062)222-7268</p>	<p>뚝이레</p> <p>동구 대의동 10-1번지</p> <p>산바디장어, 돌관볶음 꾸꾸미참숯구이</p> <p>대표 이재신 ☎062)234-7942</p>	<p>규방</p> <p>동구 충장로1가 4번지 (지하)</p> <p>돈까스, 모듬까스 생태탕, 순두부</p> <p>대표 임현숙 ☎062)227-3716</p>	<p>등촌</p> <p>동구 충장로1가 4번지</p> <p>샤브샤브전문점</p> <p>대표 김복현 ☎062)227-7734</p>	<p>김용만국수집</p> <p>동구 금남로1가 19 (YMCA1층)</p> <p>맛국수, 콩국수 김용만국수전문옛날국수</p> <p>대표 정인순 ☎062)236-3533</p>	<p>뚝임이아구찜</p> <p>동구 금남로3가 13-4 (제일은행옆골목)</p> <p>아구찜, 백반, 낙지백숙 청국장, 전통웰빙식품</p> <p>대표 홍안순 ☎062)233-1919</p>
<p>광주화랑</p> <p>궁동예술의거리</p> <p>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p> <p>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박당화랑</p> <p>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p> <p>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p> <p>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p> <p>기념품전문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광남기업</p> <p>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정입구</p> <p>사시, 유리 조립식판넬</p> <p>대표 이경규 ☎062)263-0036</p>	<p>두걸음직업소개소</p> <p>북구 두암동 824-2번지청사거리(부근)</p> <p>근로자 수시모집 (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p> <p>대표 조창욱 ☎062)263-3862</p>